

# 중동발 공급망 불안... 광주·전남 주요 산업계 '위기'

## 플라스틱 가공품 생산 차질 치솟는 유가에 수익성 악화

## 석유화학·건설·식품업계 등 나프타 수급에 불안감 확산

## 정부, 공급망 대응 체계 가동 관계 부처 신속한 조치 나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장기화로 인한 여파가 지역 주요 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나프타를 기반으로 한 소모품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당장 시급한 원유·나프타(납사) 등 에너지

수급을 위해 사활을 거는 등 지역 산업계 전반에 '조용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제 데이터 플랫폼인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나프타 가격은 t당 985.04달러로 상승했으며, 전날 대비 7.32%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프타 가격은 47.05% 상승했으며, 지난해 대비 69.38% 상승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NCC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LG화학은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NCC 2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이에 앞서 여천 NCC도 프로필렌 전용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고객사들에게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롯데케미칼도 대정부 작업을 예정보다 앞당겼다. 정유사들은 중동산 원유 수급에 난항을 겪으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미국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식품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식품 포장 필름, 플라스틱 용기, 배달용 용기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이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에서 추출되는데 나프타 수급에 불안이 이어지면 제품이 사용하는 포장재 전반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프타 대란 우려로 식품 포장지값이 50% 안팎으로 폭등하면서 선금을 내지 않으면 재료를 구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

포장재 수급 불안은 소상공인 현장에서 가격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배달용 포장 비닐 가격은 1000장 기준 6만원에서 11만 7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일회용기 가격 또한 박스당 3만 6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약 33% 상승했다.

중동산 원료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약 25일이 걸리는 만큼, 이달부터 실제 공급 차질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식품 용기와 포장재, 비닐봉지 등 생활 전반에 쓰이는 플라스틱 가공품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중동 사태 장기화는 건설업계로도 번지고 있다.

전쟁 여파로 치솟는 유가와 원·달러 환율에 이어 최근엔 상호(세시), 외벽 도장 등 마무리 공정에 쓰이는 필수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이슈까지 겹치면서 공사비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장비유류비 등 공급 측면에서 수익성 악화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동시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2일 정부는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중동 전쟁이 단순한 외교·안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공급망과 생활경제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또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5부제 대상이었던 경차·하이브리드차는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에 편입됐다. 다만 전기·수소차의 경우 이번에도 운행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려되는 수입 품목 관세 상승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며 중랑제 쓰레기 봉투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검수 기간을 줄여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국민 생

활에 필수적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의약품, 의외약품, 의료기기 품목 허가 변경 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수액제, 주사침 등 제조사들은 원재료·포장재 등 수급 불안에 대비해 공급선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범정부 공급망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중동 전쟁 이후 설치된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원료 수급, 가격 동향, 국내 생산 차질, 수급 애로를 종합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포착 즉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핵심 산업과 현장은 물론, 국민 생활 곳곳에서 공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 공급망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 의료계도 중동 리스크 직격탄... 소모품 수급 '비상'

## 약 포장재 등 공급 불안정 자동조제기 주문 제한 조치 장기화되면 환자 불편 우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의료 현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약 포장재, 플라스틱 약통 등 의료 소모품 공급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 의료 소모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급 이슈로 인해 한 자동조제기(ATC) 전용 포장지의 주문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자동조제기 포장지의 주원료인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의 국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장기 처방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 인근 약국의 포장지 부족으로 인해 약국은 운영뿐만 아니라 조제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불편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재고가 비교적 넉넉히 남은 인근 약국에 부탁해 소량의 물 용지를 빌리거나 나누고 있다.

일부 약국은 3월 중순부터 선제적으로 약 포장재를 주문한 곳도 있었다.

일부 의료기기 납품업체는 약 포장재(6롤) 1박스당 5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포장지를 불과 며칠 사이에 2~3배 올려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부터 발주 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물건을 주문하면 일주일이나 되어 도착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약 포장재, 플라스틱 약통 등 의료 소모품 공급이 불안정해졌다. 사진은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앞 약국거리 모습.

A약사는 "대다수 약국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여유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포장지가 떨어져 약 제조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조제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환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제기용 용 용지 등 필수 소모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은 약국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소아청소년과 인근 약국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주부터는 소아용 액체 약을 담은 플라스틱 투약병 신규주문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한달간 여유분이 있지만 이 사태가 2~3주 지속되면 조만간 지급 제

한을 고려하고 있다. 플라스틱 투약병(20ml·1000개 기준)은 4만6000원~5만 원대에 형성됐다.

학동의 한 B약사는 "플라스틱 투약병 12ml, 20ml 용량을 각각 1개씩 처방하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며 "약통 주문하기가 어려워졌다. 소아과 인근 약국들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러 "소아청소년과가 많은 약국은 한 달 기준 약통 300~1000개가 나간다"라며 "일부 약국은 재고가 떨어져 온라인 사이트에서 2~3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은 대량 구매, 입찰 등으로 라텍스 장갑, 주사기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 주사기와 바늘은 원유에서 추출된 '나프타'를 기반으로 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사기, 라텍스 장갑, 의료용 가운 등 의료용품 전반에 대해 '아껴 쓰자' 메시지를 전달한 상태다.

광주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는 라텍스 장갑 대신 일회용 비닐장갑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아직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단가 인상 소식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라텍스 장갑, 주사기 등도 가격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주문을 넣었다"고 말했다. 송태경 기자 sty1235@

## 정부,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 대상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

장기화한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수·위탁 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를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 직권조사는 올해 2월 발발한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폭등했지만, 대기업보다 거래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떠안는 문제가 생기면서 추진됐다.

또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업이 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실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는 지난달 20일 기준 t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하면서 영세한 중소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조사는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 곳을 대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납품 대금 연동제로 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세부적으로 납품 대금 연동제 체결과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 대금 결정, 납품 대금 미지급, 납품 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 미준수 등을 조사한다.

중기부는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률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으로 엄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직권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은정 중기부 상생협력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